“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가피입니다”

가피 Q&A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Q 가피란 무엇인가요?

가피(加被)란 산스크리트어 ‘아디스따나(adhiṣṭhāna)’를 한문으로 번역한 표현입니다.

사전을 보면 가피(加被)와 똑같은 의미로써 가지(加持), 가호(加護), 섭수(攝受), 섭지(攝持) 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가피’라는 단어의 해석을 살펴볼까요.

‘더할 가(加)’는 ‘부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피(被)’는 ‘중생이 입는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주시고, 중생이 받는다’라는 의미이죠. 저는 쉽게 설명해서 ‘부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Q 가피와 기복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요?

가피는 더 넓고 깊은 의미이고, 기복은 조금 좁은 의미입니다.

기복은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소원성취하고 싶다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가피는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가피란 작게는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크게는 지혜와 자비와 깨달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은 가피 안에 기복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기복은 작고 좁은 방향이요, 가피는 넓고 큰 심오한 에너지입니다.

Q 이웃 종교의 ‘기적’ ‘은총’은 가피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웃 종교도 분명히 기적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종교의 기적과 은총은 ‘신들의 신통력’ 같은 것입니다.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불교는 ‘신’이란 존재를 인정합니다. 다만 하늘의 신들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공덕을 많이 닦아서 하늘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죠. 그래서 신들의 능력이 강물이라면 부처님의 가피는 바다와 같습니다. 신이 주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불법과 인연을 맺기만 해도 미래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Q 불자가 기복에 치우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욕망이죠. 잘 먹고 잘살고 싶다는 중생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장 생업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욕심을 버려라, 복을 구하는 마음을 버려라’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간절하면 부처님께라도 기대고 의지하겠는가.’

괴로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대신 올바르게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꼭 기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팔만대장경에 보면 처음에 기복신앙을 닦았는데 결국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중생을 포용합니다.

Q 기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떤 점을 경계해야 하나요?

기복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절에 다녀야 합니다. 자꾸 기도하고 자주 법문 듣고 계속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부처님 경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막상 경전을 보면 기복을 위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그 기복의 인연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복이라도 좋으니 꾸준하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Q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수행’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수행법이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성불입니다. 성불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경전에 다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해도, ‘사홍서원’, ‘보현행원’, ‘육바라밀’ 등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수행을 못할까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를 않죠.

그저 성불하는 그 날까지 꾸준히 정진할 뿐입니다. 반드시 경전을 의지하세요.

Q 가피는 꼭 기도나 수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나요?

가피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현증가피(顯證加被)입니다. 현재 눈앞에서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났는데 염불하는 순간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몽중가피(夢中加被)입니다. 꿈속에서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부처님이 약을 주셨는데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명훈가피(冥勳加被)입니다.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히 나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가피를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진실로 감사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피 아닐까요.

Q 가피를 받아도 괴로움과 고난은 계속 됩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팔만대장경에도 수없이 나오고, 과거 큰스님들 법문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짧고 굵게 대답하겠습니다.

“크게 받을 것은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것은 짧게 받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고 있는데도 고난이 생긴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부처님, 제가 더 잘 닦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가피를 못 받는 것 같다”는 불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가피를 받겠다고 집착하면 ‘탐욕’입니다. 가피를 못 받는다고 짜증나거나 서운하면 ‘성냄’입니다. 가피를 마음 밖에서 구하면 ‘어리석음’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수행할 뿐’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인과법을 믿으면서 수행할 뿐입니다.

Q 기억에 남는 가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담을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불교를 배웠던 청년 불자의 감동적인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살 시도로 온몸이 부서지고 큰 장애를 얻어서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에 빠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염불하고 명상과 절을 하며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약을 처방해주던 정신과 상담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봤지만 이 정도로 마음의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자네를 포함해서 딱 두 명밖에 없었다. 비결이 무엇인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법입니다.”

Q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복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닦읍시다. 모든 존재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광우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